

# 말씀의 샘

## 9월 매일 성경 QT

9월 1~18일까지 고린도후서, 9월 19~26일까지 시편 69~72편, 9월 27~30일까지 요나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와 요나서에 대한 간략한 배경을 나누고자 합니다.

### 1. 고린도후서

고린도는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100년 동안이나 버려졌다가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에 의해 BC 44년에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AD 50년 쯤인데, 당시 도시의 인구는 8만 정도였고 이제 겨우 90년 정도의 새로운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빠르게 성장하여 제국 내에서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경제 기적을 일구어 많은 도시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스포츠와 유흥문화가 발달되었고 여행과 성산업과 종교적 다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가 편만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행 18:1~17).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고린도를 떠난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고전 16:1~11). **그를 위해 그 사이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본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과는 달리 고린도를 잠깐이라도 방문하여 교회의 징계문제를 다루려고 2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고통스런 방문'이 되었습니다(고후 2:1). **그들은 사도의 권위 자체를 문제삼았고, 바울 사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진짜라면 왜 그렇게 그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가? 왜 그의 사역은 다른 '지극히 큰 사도(super-apostles)'들과 비교하여 활기가 없는가? 왜 그의 설교는 와닿는게 없는가? 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왜 그는 다른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는가? 그가 모금한다는 것은 믿음만한 것인가? 왜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장이 없는가?'**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에 대한 비난과 의심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받은 '다른 복음'(고후 11:4)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편지였습니다. 때문에 그 주된 내용이 교회의 분열과 타락, 그리고 제반 문제들에 대한 거론과 권면이 그 주된 내용이었던 반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스스로의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와 구제 헌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반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고 바울의 전한 복음 자체를 의심하며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적 정통성을 설명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분명히 지키려는 시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지의 대상이 교회 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확대 됩니다.

요즘, 특히 한국 내에 신천지 이단이 득세하고 교회 내까지 침투하여 목회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뒤집어서 이단적 교훈을 전파하여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요나서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 헤벨에서 출생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왕상 17:8-24).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원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번영에 비견되는 만큼 번영을 누리던 그 세력이 하맛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앗수르는 살만에셀 3세(B.C.783-773년) 앗술단 3세(B.C.773-755년), 앗술니나리 2세(B.C.755-745년) 등에 왕들에 의해 통치되던 시대로서 이전의 왕들의 통치 시대에 비해 국력이 다소 약화된 때였습니다. 이는 북방의 신흥 국가인 아라 랫과의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나 설상가상으로 B.C.765-759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고, B.C.763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앗수르 땅이 칠월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하여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으로 요나 선지자가 회개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준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뤄져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장 1 여호와와 말씀을 불순종하는 요나 4 태풍을 만남 11 물에 던져지는 요나
- 2장 1 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회개 10 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 3장 1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
- 4장 1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요나의 불평 5 박넙쿨에 대한 교훈

요나서의 중요한 신학적 특징은, 구약 내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선교적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QT와 묵상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16. 9월 QT를 위한 준비 이 강화 목사

### 2016. 9. 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잠언 16장 1~3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영성의 공동체입니다  
두란노 교회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